천년의 맛과멋 전남
호남매일tv
E-mail. ko930112@naver.com

호남매일

회생파산 더는 미루지마세요
모든 채무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원리금 100% 탕감
개인회생 이 자 100% 탕감
원금최대 90% 탕감
※1:1 맞춤형 상담 하세요.
회생파산10년경력최고전문가
☎ 010-9869-3669
법무사 박장운 사무소

제 5524호 2000년 7월 25일 창사 homae.co.kr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음력 3월 7일)

추모객 오가는 세월호 등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등대 주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광주 충장로 공실률 28%…무너진 상권

대형 의류매장·지역 유명 일식집도 문닫아

카카오·시너지타워 상권 살리기 손 내밀어

'호남 최대 상권'이자 한때 '젊은이들의 성지'였던 광주 충장로 상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침체기에 빠진 충장로는 오랜 경기침체의 여파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2가 입구에는 2~3층짜리 건물 4곳이 줄을 지어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 충장로 상권에 들어서는 입구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른바 '목 좋은' 자리임에도 오랜 시간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

인근 대형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도 문을 닫은 상가들이 속속 늘고 있다. 광주의 한 유명 일식전문점도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끝냈다. 바로 옆 한 자동차 매장도 최근 철수했다.

상권 안으로 더 들어가 충장로3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의류브랜드 매장이 자리했던 한 상가 역시 '임대' 현수막이 붙었고,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던 바로 옆 신발 매장도 임대로 나왔다.

광주시민들의 추억인 '가든백화점' 터에 문을 열었던 와이즈파크 충장점도 경기침체의 상처를 피해가지 못했다.

호남지역 최대 규모로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던 'H&M 와이즈파크 몰점'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했다.

곳곳에 임대 현수막을 내건 상가 앞은 불법주차된 차량과 노점상이 점령했다. 주말 점심시간으로 많은 사람들로 붐벼야 할 상권 거리 일대는 경기침체의 여파를 보여주듯 찾아오는 발길은 뜸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광주지역 주요 상권 10곳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7.6%로 전분기(16.4%)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특히 금남로·충장로 상권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8.0%에 달한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심지어 실패를 모르고 매장을 늘려나가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마저도 10년 만에 '광주 충장로점'을 철수했을 정도다.

광주 동구도 지역 대표 상권을 살려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상권을 되살리기에는 벅차 보인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와 첨단지구를 핫플(핫플레이스)로 만든 시너지타워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충장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될 지 관심을 모은다.

동구는 최근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기업 카카오와 협업해 충장로 상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톡 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카카오가 직접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하고, 비즈니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상권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광주 첨단지구를 MZ 세대들의 핫플 장소로 만든 시너지타워도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첨단1지구 일대에 자체 브랜딩한 상가를 개발해 '시리단길'이라 불리는 상권을 만든 노하우를 충장로 상권에 접목해 침체한 상권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전남 병원들 의료공백 한계 봉착

전남대·조선대병원 안과 응급진료 협업…생존위해 '협업'

공보의 차출 전남 진료차질 우려…신규 배치 229명, 14.2%↓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두달째를 맞지만 뚜렷한 해결 기미 없이 과부하만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주요 병원은 비상 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진료과 협업 등 고육지책을 꺼내들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전남 유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지역 대표 2차 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지역 의료체계 협력 방안을 수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응급중증 환자의 수술과 진료에 있어서는 각 병원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전향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안과 응급 환자 진료·수술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나눠 맡기로 했다. 일주일에 이틀은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안과 진료를 전담하고 나머지 일자 진료도 두 병원이 긴밀히 협의한다.

필수 진료과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협업 체계 구축도 논의가 활발하다.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의 최근 병상 가동률은 각기 평균 50% 초반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두 병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각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20일 집단 사직·이탈하기 앞서 지역 의료체계의 중추로서 병상 가동률이 평균 80%대 안팎이었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펠로우)·인턴(수련의) 신규 충원 역시 크게 밑돌았고 비응급 병동 통폐합·축소 운영에 들어가면서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수술 역시 중증 응급 환자에 국한, 대부분의 수술실이 잠정 폐쇄 상태다.

외래 환자 역시 평소와 비교해 전남대병원은 20%, 조선대병원은 10%씩 줄었다.

전문의(교수)와 진료 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정부의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대체 인력까지 더해 비상진료체계를 꾸렸지만 공백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에서 공중보건의 잇단 차출에 이어 올해 신규 배치도 크게 줄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의료시스템이 한계로 치닫고 있다.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와 순회진료, 휴가 제한 조치로 버티고는 있으나 중증환자나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으로 신규 편입된 공보의는 모두 229명으로 지난해(267명)보다 38명, 비율로는 14.2%나 감소했다. /조선주 기자

곳곳 역대 가장 더운 4월…최고기온 경신

서울 29.4도로 역대 3위…철원 29.9도·정선군 32.2도 등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곳곳이 역대 4월 중 가장 더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와 더불어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른 곳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최고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고, 일부 지점에서는 4월과 4월 중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곳도 있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은 일 최고기온이 29.4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 이래 4월 중 역대 3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서울 29.4(3위), 동두천 30.4(4위) 이천 29.7(5위) ▲강원도; 철원 29.9(1위), 정선군 32.2(1위), 원주 30.1(2위), 영월 32.2(2위), 인제 30.5(2위), 홍천 30.9(2위)였다. /뉴시스